

자연과 도시와 인간...쓰레기가 예술작품이 되기까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최정화 등 7팀 '생태프로젝트'
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관점을 달리하면, 인식을 달리하면, 사물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프로젝트 '나는 너를, 너는 나를'은 이색적인 전시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으로 기획됐으며 12월 31일까지 열린다.

다소 시적인 주제 '나는 너를, 너는 나를'은 생태와 공존을 환기한다. 전시장은 자연과 도시, 인간 등 각각 주제의 생태를 현실적으로 고민한 작품들로 독특한 분위기를 발한다. 지난 23일부터 미술관 1층을 비롯해 제1, 2전시실, 로비, 야외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생태'가 구호나 이념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자 문제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쓰레기가 인간과 공존해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버리고 파묻고 태우는 행위로 이어질 때 그것은 폐기물이자 쓰레기이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공존해야 할 사물로 인식하면 전혀 다른 개체로 보인다. 다르게 보기, 즉 다양한 생명체의 시선으로 보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생태프로젝트는 아시아예술공원공사 착공으로 중의공원 일부를 폐쇄함에 따라 공원 주변 생태를 미술관 안으로 들여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최정화, 임용현, 시시각각 등 모두 7팀. 이들은 각기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신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 생태미술프로젝트 전시가 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들만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먼저 1층 전시실을 압도하듯 채우고 있는 작품은 최정화 작가의 프로젝트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거대한 고인돌을 정교하게 쌓아올린 듯한 탑 모형의 조형물은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양 쓰레기를 재료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물살에 닳고 닳아 둥글둥글해진 부표는 기대고 쉬고 싶을 만큼 편안함을 준다. 사실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든 인간이든 모두 '별에서 떨어진 먼지 한톨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번 작품은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보물 채집을 지역 학생들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

됐다.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26명의 미술학생들과 협업으로 시작됐으며 '맑은 생태가 우리의 탁한 생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작품으로 전이됐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이 말해주듯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너가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너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서 '나'는 인간이며 '너'는 자연으로 대변되는 환경이다.

임용현의 '공생'은 중의공원을 모티브로 작가가 바라본 공원과 생명의 관계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작가는 지난 2020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에



최정화 작가의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왼쪽), 곡물집의 토종곡물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

입주해 활동하며 1년간 중의공원과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살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다채로운 공원의 모습, 생성하는 부산물은 작가의 인식에 변화를 갖게 했다. 모든 환경의 요소들은 연계되고 순환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생태 리서치 프로젝트 '시시각각'은 도시의 다양한 생명체를 인간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중의공원 일대를 90일간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를 영상, 사진, 드로잉 회화 등으로 표현했다.

'미래의 생'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다. 김자이·김주연 작가, 프로젝트팀

'도시 안 개구리', 토종곡물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아카이브를 전시하는 '곡물집'이 참여했다.

특히 곡물집은 삶을 주체적으로 일구는 농부들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토종곡물에서 발견한 다양성을 주목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3년간 탐구한 과정, 결과들을 선보이고 '씨앗'을 이어가기 위한 생태적 일부로 공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김준기 관장은 "이번 생태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시선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체들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이남, 국제아트페어에서 미디어아트 알린다

9월 6~10일 '키아프 서울' 참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전시

이이남 작가가 한국국제아트페어 '키아프 서울'(Kiaf SEOUL)에 참여해 미디어아트를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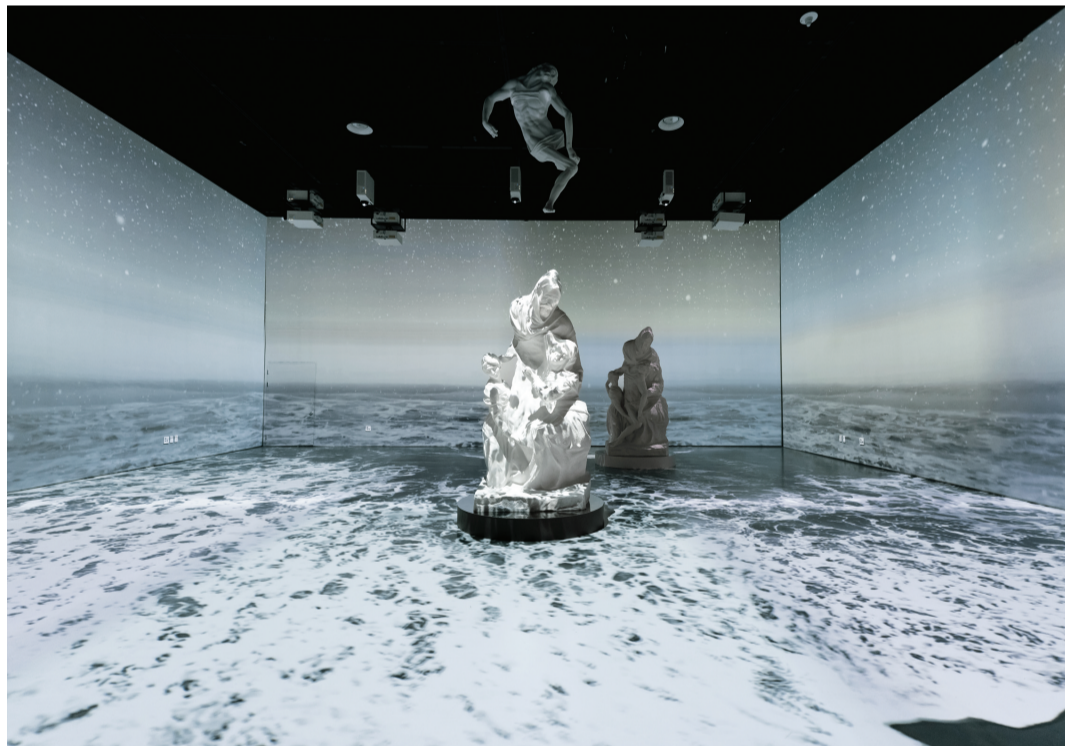
이 작가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A·B홀 등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에 참여한다.

키아프는 2002년 시작된 한국 최초 국제아트페어로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국내 작가들을 소개하는 장이다. 이번엔 국내의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함께 호흡해 온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초청했다. 이 작가는 9월 7일 Zone B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작가가 선보이는 작품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점. 고전 회화의 시간성과 동시대적인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한 작품으로 탄생과 소멸, 조화의 의미를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생명에 대한 경이로 이어지는 여정도 탐색한다.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빛과 어둠이 가진 양면성을 자연의 일부, 삶의 일부로 끌어들었다. 주제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결국 우리 모두의 내면의 어둠을 비추는 의미를 함의한다. 근원적 언어들이 자연과 죽음, 빛으로 발화되는 자연적 순환은 경외감을 갖게 한다.

이 작가는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사회이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했으면 한다"며 "나는 어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이남 스튜디오 제공)

로 가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등을 생각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키아프(KIAF·한국국제아트페어)는 세계화된 현대미술을 체험하고 아트 마켓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아트페어다. 2022년부터는 Frieze Seoul과의 공동개최를 통해 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으며 한국미술시장과 해외미술시장

을 잇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 작가는 중국 후난무지업에서 열린 'Re-birth of Antiquities: Archaeology, Time and Digital in Art History'전에서 열어붙은 한중관계 속에서 미디어아트로 교두보 역할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낭만주의 작곡가 에두아르 랄로의 생애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 장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공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공)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9월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 에두아르 랄로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랄로 작품으로 전체 레퍼토리를 채운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 이하 광주여성필)는 제66회 정기연주회 '한 작곡가의 생애'를 다음 달 1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먼저 오페라 '이스의 왕' 서곡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자매 로렌과 마르그리트 한 남자 밀리에로 사랑하는 내용과 비극적 결말을 담고 있는데, 장엄하고 애상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또 첼로 협주곡 라단조, 랄로 교향곡 사단조도 공연장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화려면서도

애상적인 관현악 선율이 알레그로 마이스토소(빠르고 장중하게)로 악곡을 이끌어 나가는 곡이다. 지휘와 해설은 그동안 광주여성필과 여러 번 공연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췄은 정병휘(서울대 외래교수)가 맡는다.

첼리스트 이호찬은 초청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한예종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 음대에서 공부했으며, 2022년 10월 앨범 '편지'로 데뷔했다. 현재 아더 첼로 콰르텟 리더.

한편 1995년 창단한 광주여성필은 광주를 거점으로 활발한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에는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사운드 오브 스트림'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공연은 광주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른다.

예약자에 한해 무료 관람. 광주여성필 홈페이지 참조.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어머니의 꽃밭

박정희 초대전, 9월 5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아트가가

'행복한 동행'으로 알려진 서양화가 박정희는 유년시절 어머니가 가꿨던 꽃밭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다. 사랑과 행복을 담은 그 꽃밭은 작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서양화가 박정희 초대전이 인사동 갤러리 아트가가에서 9월 5일까지 열린다.

신작을 포함해 모두 25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61회째 개인전이다. 그동안 작가는 위안과 위로, 사랑과 평화, 꿈과 소망 등을 담은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 작품들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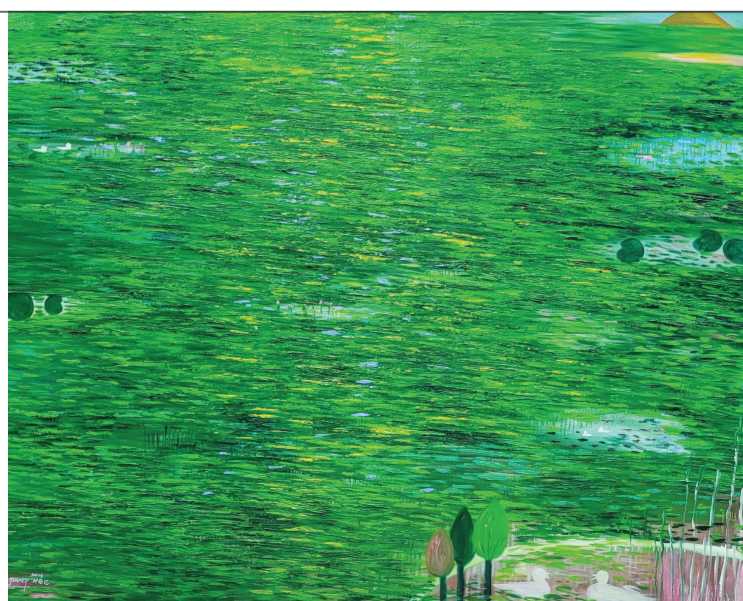
초대전을 기획한 박미숙 관장은 "박 작가는 어느

화풍에도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독특한 자유스러운 화법과 컬러로 구성과 추상의 경계를 나누고 있다"며 "오래되고 퇴색된 기억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상념을 일깨울 뿐 아니라 다양한 색채 변주곡을 통해 초현실적 신비감마저 보여준다"고 평했다.

한편 박 작가는 국립강원대 초빙교수, 국립Earist Uni. 교수, 신작전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은 서울시립미

술관,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 등에 소장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한 동행'

'전상근X그_냥 콘서트' 30일 광주예술의전당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은 기획공연 포커스 '전상근X그_냥 콘서트'를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싱어송라이터 '그_냥'이 1부 공연을 장식한다. 그_냥은 지난 2015년 가수 '닥터심슨'과의 컬래버 캠페인곡 '예뻐보여'를 통해 데뷔했으며, "그냥 듣기 좋은 음악"을 추구한다는 예명의 의미처럼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디스코그래피를 선보이고 있다.

'너의 밤은 어때', '밤비', '내가 없는 상상'을 해와 '서투른 고백', '별뿔방' 등 제목만 들어도 감성 넘치는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 기타는 신진승, 베이스는 최병호, 건반에 김진환, 드럼은 민윤식이 맡는다.

아울러 2부에는 높은 음역대와 선명한 음색



'전상근(왼쪽)'과 '그_냥'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을 특징점으로 갖는 아티스트 '전상근'이 무대에 오른다.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에 '응답하라 삼천포'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한 이래, 대표곡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로 이름을 각인해 왔다. 건반은 한희준, 세션키보드는 오해성이 맡았으며 드럼에 이진봉, 베이스에 이관규, 기타에 김택균.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에서 예매. /최류민 기자 rubi@